

2015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문제 해설

【인문계 1번】

이 문제는 민족주의에 대한 문제이다. 상자 안의 글은 한국의 20세기가 민족주의의 시대였고, 20세기 한국사에서 민족주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전제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비록 남북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주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민족주의는 민주, 자유, 평등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자유주의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20세기 한국의 민족주의가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21세기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민족주의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 거의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이론적 성격의 글이다. (가)는 민족주의가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족국가의 쇠퇴와 더불어 민족과 민족주의의 위상은 아주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나)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편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주의를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정치형태로서가 아니라 민족들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언어, 정서, 상징체계를 포함하는 민족정체성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민족정체성은 종족적 정체성과 종족공동체, 즉 긴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렇게 민족주의의 요체를 민족정체성으로 이해하면 민족주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가)와 (나)가 민족주의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제시하는 이론이라면, 제시문 (다)와 (라)는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분석 내지 평가이다. (다)는 1960-70년대의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고 따라서 그 시기의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의제 자본주의 사회였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 의제 자본주의의 해체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전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라)는 세계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발전하면서 트라우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트라우마 현상은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도 나타났지만,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고유의 집단 트라우마도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국가주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서 (다)와 (라)를 연결시켜서 보면 한국사회는 1970년대까지는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고,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진압하였다는 것과 그 결과로 한국사회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가 일으키는 일반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본주의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집단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결론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를 전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에는 선입견이 배제되어야 한

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에 대한 (가)(나)의 상반된 이론이 보여주듯,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를 미리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앞으로 한국의 민족주의가 과거에서처럼, 이데올로기나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다차원적인 민족정체성으로 발전해나간다면, 민족주의는 21세기 한국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다차원적인 민족정체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이 문제의 핵심은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민족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에 수험생 각자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인문계 2번】

2번은 최근 한 연예인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으리’ 현상에 관한 문제이다. 대개 특정의 사회적 현상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 토대와 무관하지 않다. 이 점을 ‘으리’ 현상을 통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인 셈이다.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 개의 지문을 제시했다. 세 개의 제시문은 그 연관관계가 좀 험거운 편이다. 의도적으로 층위와 관점을 달리하여 다소 산만하게 배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개의 제시문을 잘 요약한다고 해도 곧바로 정답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 나머지는 이 현상에 대한 수험생 자신의 구성적 역량으로 채워가야 한다.

세 개의 제시문을 통해 다양한 논리적 연관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을 어떤 논리로 재배치할 것인가가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지만, 특히 (다) → (라) → (나)의 순으로 제시문을 재배치해보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다.

제시문 (다)는 문화인류학적 차원에서의 ‘우리’라는 정체성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당대 현실 위에 놓고 있다. 여기서 ‘우리’라는 정체성은 반드시 단일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적 주체로도 작동한다. 여기서 집단 정체성의 양가성(兩價性) 내지 양면성을 읽어내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시문 (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합리적 이성으로 작동되는 사회가 아니라 ‘정’ (情)의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한국사회의 특징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제시문 (나)에서와 같이 종종 ‘정의’와 ‘으리’를 혼동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 논지를 한쪽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테면 한국사회는 사람 간의 정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이런 비합리성이 ‘으리’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식의 답안이 그 경우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방적인 논지는 명쾌해 보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 독단에 빠지기 십상이다. 제시문 (다)가 이러한 일방통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먼저 읽어내자. 그렇다면 출제 의도를 절반 이상 파악한 셈이 된다.